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인종평등선교주일



이 예배 자료는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의 인종평등선교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자료집에 포함된 다른 자료들과 함께 예배에 활용하세요.

인종평등선교주일 개요

인종평등선교주일은 교회 일정 중 또 하나의 특별 주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날입니다.

웨슬리 전통에서 신앙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 제자도,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긍휼과 정의, 섬김과 자비,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의 사역입니다.

인종평등선교주일은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신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 아픔을 짊어진 사람들
- 소망을 찾는 사람들
- 어딘가 속하길 원하는 사람들
-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한 이들
-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인종평등선교주일은 교회가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인종평등선교주일 특별헌금은 다음과 같은 사역을 지원하여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 개발
- 자원봉사 사역
- 권익 옹호 사역
- 청소년 지원 및 회복 프로그램
- 치유와 정의, 그리고 회복의 사역

추천 성경 본문

구약

미가 6: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시편 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신서

에베소서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음서

누가복음 10:25~37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설교 자료

인종평등선교주일



설교 자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이 진정으로 묻고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중요한가?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한 편의 이야기로 대답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심하게 맞아 가진 것을 빼앗긴 채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몇몇 종교인들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한 사마리아인은 걸음을 멈추어 그를 도왔습니다. 그를 돌보았으며, 그가 끝까지 잊히지 않도록 책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웃 사랑은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인종평등선교주일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와 닮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삶의 무게와 씨름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 다시 삶을 세워 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가 쉽게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자선 행위가 아니라,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가 이 말을 한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성화 외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인종평등선교주일은, 지역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동안 교회가 그저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 길을 건너 이웃에게 다가가세요.
-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 깊이 귀 기울여 들으세요.
- 긍휼로 섬기세요.
- 관계를 세우세요.
-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묻지 않았습다.

그는 그저 걸음을 멈추어 긍휼을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설교 요점

1. 이웃을 바라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며 모든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2. 사랑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불했고,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참된 신앙은 말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자리로 직접 나아가 그 틈을 메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자료

인종평등선교주일



3. 신앙은 개인적이며(개인적 성화), 동시에 공적입니다(사회적 성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 갑니다.

4. 교회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야 합니다.

인종평등선교주일은 사역이 주일 예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과 지역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는 고통이 있는 곳에 소망을 전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치유를 가져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재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담대하게 표현하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사역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나눔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은사를 나누며, 더 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고,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스테파니 무어 핸드 목사(박사) 서노스캐롤라이나연회 전도 담당,
조직 변화 컨설턴트

영향력을 위한 연합: 우리의 관대함은 지역사회들을 강하게 하는 연결을 만듭니다.